

# 회계사수장 첫 온라인투표...“개혁 완성” 오구동성

〈五口同聲〉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 선거 병행 홈페이지 통해 후보 정견발표 동영상 젊은 회계사 위한 복지공약 줄이어

오는 17일 2만2000여명의 공인회계사(CPA)를 이끌 한국공인회계사회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5명의 후보들은 일제히 회계개혁 완성과 상생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로 회장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젊은 회계사를 공략하기 위한 복지제도 강화 등의 공약도 쏟아졌다.

3일 한공회 홈페이지에는 (기호순) 채이배 전 의원과 정민근 안전회계법인 부회장,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등의 정견발표를 담은 동영상상이 공개됐다.

5명의 후보들은 현 최종경 회장이 앞장섰던 회계개혁 완성과 업계 상생, 과도한 책임 완화 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기호1번 채이배  
前 국회의원



기호2번 정민근  
안전회계법인 부회장



기호3번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기호4번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



기호5번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회계 개혁을 마무리해 시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표준감사 시간제도의 정착과 주기적·직권지정제도 확대해 강화하고,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를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후보자들 가운데서는 유일한 국내 빅4 회계법인 출신으로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채이배 전 의원은 “의정활동 4년 만에 40년된 낡은 자유수입제를 폐기하고, 주기적 지정제를 만들었다”며 “신의 감법을 반드시 지키고 보완해 회계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감사

인 등록제도는 개선·보완할 계획이며, 감사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도 개정하겠다고 내세웠다.

유일한 학계 출신인 황인태 중앙대 교수는 “공동 책임연구자로서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등 회계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회계제도는 아직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외감법 개정의 힘써 왔던 감독당국과 업계가 협업해 현재의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회계법인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제시됐다.

정민근 안전회계법인 부회장은 “중견·중소회계법인·감사반 및 대형회계

법인이 함께 이뤄가는 상생의 회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소형회계법인에 한해 1인 사무소(지점)도 허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지난 4년간 한공회 미래 전략부회장과 직무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는 “현행 감사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기간은 감사보고서 발행일로부터 8년이라 언제든 피소당할 수 있다는 불안이 너무 오랫동안 감사인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타 전문직과 외국의 입법사례를 고려해 균형 잡힌 개선을 추

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젊은 회계사들의 표를 잡기 위한 공약도 쏟아졌다. 이전까지 현장투표만 가능했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온라인 투표도 가능하다. 젊은 회계사들의 참여가 대폭 늘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표심에 따라 선거 판세도 달라질 수 있다.

김 대표는 “젊은 회원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최근 증원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세무사의 직역침해시도를 절대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채 전 의원도 “주52시간 근무제와 재량근로시간제가 과거로 회귀하지 않도록 지켜가겠다”며 “현실과 인력수요에 맞게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비상장회사의 감사·세무 기한을 4월 말로 변경해 업무를 분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장 선거는 오는 17일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와 현장 모니터 투표로 치뤄진다. 선거결과는 당일 공개되며, 회장 임명식은 바로 열릴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절박한 JY “기소 여부 외부서 심의해 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대내외 경영 불안에 ‘SOS’ 신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합병·승계 의혹’ 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나섰다.

사법 당국이 여전히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주요 경영진에 대한 무리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대내외 위기에 맞서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마지막 ‘SOS’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가 소집되고,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관련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달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던 도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신병처리와 기소 여부가 다시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2018년 도입된 제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 적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등이다.

재계에서는 이같은 삼성의 조치가, 수사 당국이 그동안 특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을 무리하게 기소할 것을 우려한 선제적 대응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코로나19와 미중무역분쟁으로 대내외 경영 불안에 빠져있는 상황. 사업지원 TF 주요 경영진에 이어 이 부회장까지 자리를 비우면 ‘반도체 비전 2030’ 등 전략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여러 전문가들은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에도 그렇다할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검찰이 일부 여론에 떠밀려 과도한 표적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이어온 바 있다.

실제로 검찰은 1년8개월여간 수사를 이어오는 동안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한

상태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당시 주요 경영진은 물론이고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현직 주요 경영진까지 100여명까지 1000여회에 걸쳐 소환했음에도 그렇다. 일반적인 수사였다면 이미 종결됐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 입장이다.

해당 사건이 수사할만한 사안도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은 당시 삼성물산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렸으며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단순히 회계 기준을 GAAP에서 IFRS로 변경하면서 생긴 방식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다.

합병 자체가 정상적인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수사 자체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과 관련해 주주총회를 열고 3분의2로부터 찬성을 받았다.

/김재용 기자 juk@

## >> 1면 ‘램데시비르...’서 계속

## 美 NIH 임상시험서 입원 기간 31%단축

에볼라 치료제로는 아직 허가받지 못했지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주도하는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약 31%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초 램데시비르를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 쓸 수 있도록 긴급사용 승인했다. 질본은 현재 미국은 물론, 일본, 영국에서도 램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와 함께 램데시비르가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램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은 국내 코로나19 중증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램데시비르가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을 받으려면 아직 상업화 임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는 현재 서울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 등에서 램데시비르에 대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 연구 계획에 맞게 연구자 임상, 상업화 임상을 차근차근 진행 중인 것은 전반적인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특례수입되는 부분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증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긴급 승인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금융위, 카드사에 영세가맹점 주말대출 허용

### 영세가맹점 자금 확보 어려움 해결

금융위원회는 3일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의 주말 운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 매출 대금을 받았다.

다만 이 경우 주말, 공휴일 등 카드사

비영업일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영세가맹점은 최대 4일 간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대해 주말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말 대출은 영세가맹점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카드사에 신청하면 주말 중 일부 자금을 받는 방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시흥 배곧지구 ‘무인이동체’ 거점도시 육성

### >> 1면 ‘광주·울산·경기 시흥...’서 계속

2030년까지 국내외기업 5조5544억원 투자 유치가 목표다. 울산과학기술원,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 등과 협력해 기업부설 연구소와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현대모비스 등을 중심으로 수소 자동차 부품, 연료전지 협력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생산유발 12조4385억원, 고용유발 7만6712명을 예상하고 있다.

향해 시흥 배곧지구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무인이동체’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자율자동차, 무인선박, 드론 등 관련 글로벌 혁신기업을 유치하고, 2022~2027년 국내 5561억원, 외투기업 5681억원 등 국내외 기업 총 1조1242억원 투자유치가 목표다. 생산유발효과 5조286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5897명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